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8월 21일(주일) 제1406호



사진은 SNS청년부의 말라위 아웃리치.

더 뜻깊었던 온누리의 여름이야기!

여름 아웃리치 마무리 ... 해외 난민 섬김, 국내 어린이 캠프 집중
국내 158개 팀, 2,536명, 해외 50개 팀, 427명, 온라인 16개 팀 참가

2022년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더 뜻깊었던 온누리의 여름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아웃리치 규모는 작아졌지만, 내실은 더욱 탄실하고, 열매는 더욱 풍성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아웃리치를 진행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고무적이었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158개 팀, 2,536명, 해외 50개 팀, 427명, 온라인 16개 팀이 참가했다. 해외 아웃리치에서는 난민들을 위로하는 사역에 집중했고, 국내 아웃리치에서는 다

음세대 크리스천 리더십 양성을 위한 어린이 캠프에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아웃리치팀들은 레바논, 몰도바, 폴란드, 요르단, 오스트리아, 브라질, 튀르키예, 이스라엘 등지에서 난민들을 섬겼다. 국내 아웃리치팀은 어린이 캠프, 교회 보수, 축조전도 등의 사역을 했다.

유정희 성도(강동온누리교회)는 "아웃리치가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보다 훨씬 크고 풍성했다"고 고백했고, 권연주 성도(JDS양재 주간반)은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험했다"고 간증했다.

송기원 목사(부안 청림교회)는 "서빙 고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팀이 멀리 전라북도 부안 산골짜기까지 달려와서 열과 성을 다해 청림교회를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인사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은 "이제는 아웃리치 지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꾸준히 관계 맺는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름 아웃리치의 바통을 오는 11월 2일(수)과 3일(목) 열리는 러브소나타 미야자키가 이어받는다. 오는 9월부터 봉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9월 13일 개강

화 오후 8시 Zoom, 이기훈 목사, 김숙경 소장 강의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9월 13일 개강한다. 9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와 김숙경 소장(결혼예비학교 강사)이 '큐티', '가족'을 주제로 강의한다. 온라인커뮤

니티 담당 목회자들(여성민 목사, 이준인 목사)은 <생명의 삶> 묵상 말씀 나눔을 주제로 소그룹 모임을 인도한다. 대면 활동도 할 예정이다. 둘째길 산책, 영화관 데이트, 온라인 전도집회 '친구 초대의 날', 크리스마스 블레싱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21년 5월 시작했다.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공동체다.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성도 등이 대상이다. 현재 450명(신청자-플러멤버, 플러멤버 포함)이 함께하고 있다.

대만에 거주하는 소혜영 성도(플러멤버)는 "온라인 모임이지만 한국어로 소통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개강예배

공동체별로 8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온누리공동체가 2022년 하반기를 힘차게 출발한다. 오는 8월 26일(금) 특별한초대를 시작으로 9월 17일(토) 서대문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9월 10~11일 추석 Harvest 집회, 9월 24~25일 추수감사주일, 10월 1~2일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주일, 10월 12~14일 부흥축제, 11월 2~3일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11월 26일 임직식 등이 예정되어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빙고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8월 26일(금)	특별한초대	두란노홀	18:00
8월 27일(토)	일산	일산비전센터	16:00
8월 27일(토)	광명	Zoom	18:00
8월 31일(수)	성북	Zoom	20:00
8월 31일(수)	OCC	Zoom	20:00
9월 1일(목)	김포	비전홀	18:00
9월 2일(금)	강서	두란노홀	18:00
9월 2일(금)	가정사역	한동홀	18:00
9월 2일(금)	찬양사역	시온홀	18:00
9월 2일(금)	동대문중앙	비전홀	18:00
9월 2일(금)	용산	Zoom	20:00
9월 2일(금)	양천	Zoom	20:00
9월 2일(금)	이촌	Zoom	20:00
9월 2일(금)	노원	Zoom	20:00
9월 2일(금)	중종로	Zoom	20:30
9월 3일(토)	신용산	비전홀	16:00
9월 4일(주일)	고양은평	Zoom	19:00
9월 5일(월)	관악금천	두란노홀	18:00
9월 6일(화)	이수	Zoom	20:00
9월 6일(화)	마포	시온홀	18:00
9월 6일(화)	서빙고	Zoom	20:00
9월 6일(화)	강촌	Zoom	20:00
9월 6일(화)	영등포구로	Zoom	20:00
9월 7일(수)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20:00
9월 7일(수)	성동광진	Zoom	20:00
9월 7일(수)	동작	온라인	20:00
9월 16일(금)	한강	시온홀	18:00
9월 17일(토)	서대문	불광동 팀비전센터	15:00
미정	여의도	Zoom	미정

양재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8월 26일(금)	서초C	화평홀	18:00
8월 31일(수)	송파B	화평홀	19:30
8월 31일(수)	양재A	온유홀	20:00
9월 1일(목)	분당B	드림홀	20:00
9월 1일(목)	송파A	화평홀	19:30
9월 2일(금)	강남C	화평홀	19:50
9월 2일(금)	도곡	Zoom	20:00
9월 2일(금)	분당A	온유홀, Zoom	19:30
9월 2일(금)	Point5	Zoom	20:00
9월 2일(금)	경기A	Zoom	20:00
9월 3일(토)	강남D	Zoom	20:00
9월 3일(토)	서초D	도곡 기쁨홀	17:00
9월 3일(토)	하모니	Zoom	20:00
9월 4일(주일)	푸른누리	숙명여고 강당	15:30
9월 6일(화)	강남A	Zoom	20:00
9월 6일(화)	과천의왕	화평홀	20:00
9월 6일(화)	서초A	드림홀	19:30
9월 7일(수)	강남B	화평홀	20:00
9월 7일(수)	강남E	드림홀	19:30
9월 7일(수)	서초B	Zoom	20:00
9월 7일(수)	양재B	Zoom	20:00
방학 없음	Bridge33+	-	-

캠퍼스			
8월 27일(토)	부천 희락	강화 성산수련원	09:30
9월 2일(금)	부천 믿음	Zoom	20:00
9월 3일(토)	부천 소망	Zoom	20:00
9월 4일(주일)	부천 사랑	Zoom	14:30
9월 4일(주일)	부천 화평	비전홀	16:00
9월 14일(수)	수원 연합	본당	20:00
9월 2일(금)	대전/세종 연합	본당	19:30
9월 1일(목)	남양주 C	본당	20:00
9월 2일(금)	남양주 A	본당	20:00
9월 2일(금)	남양주 B	공동체	20:00
9월 4일(주일)	평택 연합	본당	16:00
9월 3일(토)	인천 연합	본당	17:00
9월 2일(금)	강동 연합	본당	20:00
9월 2일(금)	양지 연합	박모세홀	20:00

당회

일시: 8월 27일(토) 오전 6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제직회

일시: 8월 28일(일) 2부 예배 후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대상: 모든 제직
*주요안간: 평남노회 청원

맛있는 말씀 해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마 5: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마 5:37).

우리말성경 버전으로는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두고 몇 가지 오해하는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분들은 성격상 우유부단해서 혹은 누군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분명하게 옳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니오” 할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옳은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본문의 뜻은 양비론(兩非論; 서로 대립하는 양쪽의 주장이나 태도를 모두 그르다고 하는 견해나 입장)이나 양시론(兩是論; 서로 대립하는 양쪽의 주장이나 태도를 모두 옳다고 하는 견해나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다.

둘째, 어떤 결정을 할 때 기권하지 말고 옳으

면 옳다고 의사표명을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의사표명을 하라는 것이다. 의사표현을 피하는 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이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확한 뜻이 아니다.

셋째, 속과 겉이 일치된 표현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겉으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속마음에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감이 없어서일지 모른다.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은 자기 속에 있는 속마음과 일치시켜서 의사를 표현하라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옳다고 여기면 옳다고 표현하고, 마음속에서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님을 분명하게 주장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쉽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헛맹세를 많이

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맹세를 쉽게 저버리거나 궤변을 써서 그들의 헛맹세를 변호하기도 했다. 이러한 당시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일침을 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자신의 머리 등을 두고 맹세했다. 우리도 가끔 자신의 진정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부모님 이름, 자신의 성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다. 조금 나쁜 경우는 갈등이나 대립 가운데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구절을 사용해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악마화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맹세와 비진실성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무례한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대신 하늘, 땅,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책임은 면하고 효과는 증대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

다.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머리 역시 마찬가지다. 머리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제 뜻대로 옳으면 옳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 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의견을 말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와서 마치 하나님이 정당화시켜준 말씀처럼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다.



오은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삶 QT 프리뷰 (preview)

하나님 언약 위에 세우는 믿음

8월 22일~28일
창세기 12:1~15:21



는지 묵상하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시며 복된 약속을 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했지만, 아브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브람은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나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곡창 지대인 애굽(이집트)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내 사래(사라)를 누이라고 속인다. 바로는 사래를 취한 대가로 아브람에게 많은 가축과 노비를 준다. 하나님이 바로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람과 사래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아브람의 초기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묵상포인트 1: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12장에서 구체화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람(아브라함)의 순종은 인류 구원의 출발점과도 같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초기 신앙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

묵상포인트 2: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비옥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다. 반면 가나안 땅은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다. 롯의 선택과 그 결과, 아브람의 믿음 성장을 묵상하자.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갈등한다. 아브람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준다. 롯은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다. 그곳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거주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다. 롯이 소돔 땅에 머물 때 큰 전쟁이 벌어진다. 서편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니 롯도 포로로 잡혀간다. 아브람은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포로들과 빼앗긴 재물을 되찾는다. 승리한 아브람이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니 아브람도 화답하듯 십일조를 바친다. 살렘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정의(히, 체데크)와 평화(히, 샬롬)를 상징하는 왕으로 본다.

묵상포인트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히 11:6). 아브람은 약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의롭다 여겨 주신다. 아브람 당대에 모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일들

을 묵상하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하늘의 별을 보여 주시며 ‘자손’을 약속하시니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자손에 이어 ‘땅’을 약속하시니 아브람이 그 증거를 요청한다. 하나님은 제물을 가져와 그 중간을 쪼개라고 하신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약속을 어기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쪼갠 제물 사이를 훑듯이 지나가는데 이는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지만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시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넓은 영토를 약속하신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부르심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따라야 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순종으로 이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자. ▶롯은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굳게 붙들자.

/ <생명의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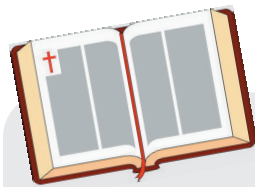
정지혁 형제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제 남편 정지혁 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이 지난주 차를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려는데 사이 차가 뒤로 급발진을 해서 차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뼈들이 부러지고 장기에 출혈도 생겨 수술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수술을 잘 마치고 집중관리실에 들어가게 되었구요.

처음 사고가 나고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자가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혈압도 높았고, 기흉도 찼고, 장기출혈도 있어서 무척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부재로 운영하는 사업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와 아들 새하는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분들 덕분에 며칠 전 큰 고비도 지나갔습니다. 또한 남편이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가호흡도 시작했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고, 물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치료 과정과 회복, 저희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 정지혁 형제의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잘 붙을 수 있기를, 통증이 사라지기를,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 저희 가정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고.

/ 박상희 자매(강동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새 창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지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변화와 구원에 의문을 갖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죄와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성 크리소스토스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떻게 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세상이 구원받은 일이 가능한가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어떻게 한 불순종한 인간 아담을 통해서 세상 전체가 저주받는 일이 가능했는가?’ 라고 질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이 가능하다면 죄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죄가 퍼져있고, 죄로 인하여 세상이 망가진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한 사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와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이 온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롬 5:12).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로마서 5:12~21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3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는 것은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창조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역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심지어 배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더라면 인간은 하나님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배반이 없는 기계적인 상태의 인간이 아닙니다. 배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격적인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인간을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능력을 조금도 위협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씀은 창세기에 나타난 타락의 역사, 에덴동산의 역사, 창세기 3장 역사가 실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그들의 인격적인 판단, 결심, 과정이 있는 불순종입니다. 타락의 순서대로 말하면 하와가 먼저고 아담이 두 번째지만, 여기서 한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타락의 책임이 있고 대표성을 가지는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성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지음 받은 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도록 하는 문이 된 것입니다. 죽음은 죄를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은 최고의 법이요, 권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이 존재하고 왕 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900년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분리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주시고,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회복되고 구원받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

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또한 모두에게 이르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원죄를 부인합니다. 아담처럼 죄를 지을 수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부인하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으므로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원죄를 부인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곧 우리의 죄이며,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던 아담 안에 있던 죄의 DNA가 모든 인간에게 전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아담을 통하여 태어날 모든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후손들과 함께 맺은 것이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모든 후손이 깨뜨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한 죄의 대표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죄의 전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왕 노릇 했다면”,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이라고 반복하면서 한 사람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와 심판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와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의 근본은 인류의 조상이 한 사건, 한 불순종, 한 범죄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분’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친 영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에 “한 사람 예

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17절 후반부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에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19절 후반부에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죄와 죽음과 심판의 결과와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와 생명의 선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15-16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분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아담은 종의 역할을 거부했지만, 그리스도는 종의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높였으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아담은 죽기까지 불순종했으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왕 노릇을 하는 통로가 된 아담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의인들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가져오는 의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에게 또 다른 별명은 ‘둘째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심판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행위에 의존되어 죄와 죽음에 결속된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의 행위에 의존되어 의와 생명에 결속된다”는 진리가 성립됩니다.

〈13편에 계속〉

트리플 서티즈(Triple Thirties)

시니어들의 생존 스킬 ... 소통에 필요한 문화습득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랑공동체,
칼럼니스트)

얼마 전 국민MC 송해 씨가 소천했을 때 대한민국이 아쉬워했다. 아마도 96세까지 현역으로 살다가 그의 발자취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수이자 코미디언이었던 그가 KBS '전국노래자랑' MC를 처음

으로 맡은 나이가 62세였다. 외아들을 오토바이 사고로 잃고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는 남들이 은퇴할 나이인 62세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34년 동안 진행을 맡았다. 출연자만 1천 명 이상을 만났다고 하는데, 젊은 MC들이 넘어설 수 없었던 내공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삶의 연륜이 만들어낸 공감 능력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히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그 나이가 되도록 육신과 정신 건강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3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였다고 한다. 세계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KFC의 창립자 커넬 샌더스는 인생에서 수 없는 실패를 거듭하다 60세가 넘어 KFC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70세가 넘는 나이에 발로 뛰며 3,500개 매장을 관리했다. 오너셰프의 자세를 가진 CEO였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신음하는 노년

예전에는 60세에 은퇴해 70대에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아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30년을 세 번 사는 시대가 되었다. 30년(30세) 준비하고, 30년(60세) 일하고, 30년(90세) 은퇴 이후 삶을 살아가야 하는 '트리플 서티즈(Triple-Thirties)'에서 100세 넘게 장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세 번째 30년부터는 건강이 보장되지 않으면 괴로움만 더해지는 나날이 될 뿐이다. 두 번째 3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나머지 30년이 좌우될 수 있다. 병든 부모님을 집에서 부양하는 시대는 한 세대 전에 이미 지났다.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치매가 오고 지병이 악화되면 대개 요양병원에 가서 가족과 떨어져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다. 장례식 때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로운 천국환송예배를 드리고 고인을 기리지만,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은 본인이나 가족 모두 힘든 게 사실이다. 치아가 빠지면 튜브로 유동식을 넘겨야 하고, 누운 채 갈아주는 기저귀에 의존한다. 치매로 인해 병원 침대를 벗어나려 시도하면 어쩔 수 없이 손발이 묶여 보호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쯤 되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지만



**“자녀와 부모가 한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른 세계에서 살고, 그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
시니어 연령층에 가까워지는 부모들은
생존과 소통에 필요한 문화습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빨리 죽고 싶어도 의학의 발달로 인해 소원대로 되지 않고 생명 연장이 계속된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발표를 보면 65세 이상 비율이 2020년 15.7%에서 2070년 46.4%로 세 배나 증가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에 이미 노령인구 800만 명을 돌파했고, 곧 20% 이상을 차지하는 시대에 근접해 있다. 우리나라 자살율이 20년 전부터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노인자살율이 높기 때문이다. 노인자살율은 경제적 빈곤과 지병, 외부와의 단절에서 오는 우울증과 밀접한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 높다. 자살율과 빈곤율은 늘 비례한다. 자식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어 기초수급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자식들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연을 끊는 경우도 많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정서적 외로움으로 고독사를 맞는다. 노후 파산의 원인은 자녀교육 뒷바라지가 가장 크다. 평균적으로 40대까지 소득의 30%를 지출하고 자녀의 결혼을 위해 은퇴 자금의 55%를 지출한다고 한다. 은퇴 이후 지병은 늘어나는데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생활비가 부족해 노후 파산을 앞당기게 된다.

스마트폰 활용능력이 곧 생존능력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외로운 노후 상황이 가중된다. 현대인에게 자

녀와 부부관계가 멀어지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인터넷의 발달이다. 한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폰 활용능력은 곧 생존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고, 검색과 쇼핑, 줌(Zoom) 미팅을 하고, 주식 및 코인 거래, 유튜브와 OTT 플랫폼에서 영상을 즐긴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비즈니스와 각종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는 만큼 가족 간 소통이 멀어지는 느낌이다. 하지만 가족 단체채팅방을 잘 활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 얼마 전 우리 공동체 장로님들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근황을 나눈 적이 있다. 한 권사님이 해외에 있는 손주들에게 매일 성경 말씀과 권면을 녹음해 가족 단체채팅방을 활용해 전달하는데, 신앙교육과 함께 3대가 소통하는 감동적인 모습이 었다.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가르치는 것은 부모보다 조부모가 훨씬 낫다. 대개 맞벌이하면서 육아에 지친 부부를 대신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구수한 옛날이야기처럼 영상으로 녹화해 보낸다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도 되고, 가족 간 관계도 이어질 것이다. 가족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것도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더 늦기 전에 가족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장에서 퇴직한 고학력자들일수록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회적 지위를 의식해 제2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집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력을 바탕으로 조금만 테크닉을 배우면 노후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 대기업 CEO 경력을 지녔는데 은퇴 이후 호텔 레스토랑 웨이터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 지자체 자연사 박물관에서 해설사로 일하는 전직 아나운서, 퇴임 이후 양봉을 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지속해온 암벽타기를 하는 교장 선생님, 정년 이후 몽골 대학에서 무보수로 학원 선고를 하는 교수님, 일찌감치 병원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의료인도 있다.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다. 평생 같고 닭은 음식 솜씨로 밀반찬 만들기 유튜브를 하거나 경로당 출근을 위한 촌스러운 화장법으로 수십만 구독자가 있는 할머니들도 있다. 기본 여건만 갖춰진다면 자기가 잘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 해야 하는 것들을 도전하는 세대가 시니어들이다.

예전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던 줌(Zoom) 미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회 순예배나 사역본부 모임에 등장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해맸지만 나이드 권사님들도 이제는 온라인 미팅에 익숙해졌다. 해야 하는 거라면 나이 관계 대지 말고 빨리 배우는 게 낫다.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꾼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2020년대 후반에는 10억 명 정도가 메타버스 상거래를 하며 수백 달러씩 쓸 것"이라고 했다. 2030년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6,5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데, 대체불가 토큰(NFT)은 이미 가상경제 생태계에 접목돼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메타버스에서 놀고 상거래를 하는 연령대 대부분이 10~20대라고 한다. 자녀와 부모가 한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그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시니어 연령층에 가까워지는 부모들은 생존과 소통에 필요한 문화습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시니어들에게 소망을 주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모세와 갈렙이다. 이집트 왕자 모세는 40세 때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다. 하나님은 힘과 학식으로 충만했던 그의 젊은 시절 패기를 다 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한 나이 80세에 부르셨다.

유다 지파 족장이었던 갈렙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되어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수 14:7),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헤브론 땅의 장대한 자들 곧 아낙 자손의 산지를 솔선해 정복하고 분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앞장선 신실한 믿음의 용사였다(수 14:13-15).

2022년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새해에 기도하고 다짐했던 비전의 성취를 위해 기죽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시니어들의 발걸음을 기대한다.

JDS 양재 주간반

포항 아웃리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4).

하나님의 사선이 우리 아웃리치팀의 주제 말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아웃리치에서의 목사님 강의는 신앙적으로 불확실했던 여러 부분을 해결해 주었고, ‘기도의 돌파’라는 메시지가 내 마음에 강한 울림으로 밀려왔다. 내 마음에 단단한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호미곶, 한동대학교, 감포바닷가 등 포항의 곳곳을 다니며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늘 나라와 같았다. 특히 사역지 중 감포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찬 그야말로 무속인의 성지라 불릴만했다.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단체복도 입지 않고 일반 관광객처럼 그곳을 찾아가야 했다. 감포는 그곳이 우상숭배 제단이었고 헛된 것을 향해 복을 구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의 공간이었다. 어떤 공격도 각오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피하기에 급급하고 친절하게 우리를 거절했다. 아마도 영안이 뚫린 그들의 시선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천군천사가 보였으리라.



JDS 양재 주간반 아웃리치팀이 포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팀 모두가 뽑은 최고의 순간은 감포 자갈 해변에서의 SUM이었다. 온통 굿당의 소리로 가득했을 감포 바닷가 해변에서, 찬양이 흐르고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는 믿음의 고백의 예배인 SUM을 통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라며 산들도 바다도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다. 그 찬양이 온전히 하늘에 닿았을 때 바닷가의 해변은 자갈들로 울퉁불퉁했지만 내 다리는 트램펄린 위에서 뛰는 듯 오히려 가벼웠다. JDS 강의 때 들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세기 말씀

이 내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를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춤추셨다는 바로 그 SUM이었다.

그 순간 마치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최근 몇 년 동안 감포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없었다는 사모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팀을 향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부으심을 느꼈다. 우리는 아웃리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마음껏 뛰놀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맡기신 씨를 뿌렸을 뿐이다. 그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며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아웃리치가 끝났지만 나에겐 남은 숙제가 있다. 포항에서 받은 은혜로 친정 식구들의 영적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다.

권연주 성도
(강남C공동체)

강동 동서울A공동체

원산도교회 아웃리치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믿음을 갖고자 교회 문을 두드린 지 1년 된 초신자다. 나에게는 아웃리치가 생소했다. 아웃리치의 뜻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참여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그 답을 알았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음 안에서 참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웃리치 출발 몇 주 전부터 매주 기도모임이 열렸다. 기도모임을 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감사와 은혜를 경험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단합하고 배려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다.

강동 동서울A공동체 아웃리치 팀원은 총 39명이었다. 전도팀, 미용팀, 식사팀, 환경개선팀, 예배팀, 다문화어린이캠프팀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사역을 했다. 우리팀은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 원산도교회에 도착한 첫날, 나는 전도팀에 소속되어 미용팀을 도우며 전도를 맡았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는데 용기 내어 순식구들과 함께 전도했다. 컷과 파마 등을 하



강동온누리교회 동서울A공동체가 원산도교회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다.

리 오신 동네 어르신들에게 준비해온 전도지로 나눠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다. 어르신들께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면서 그동안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앞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가까호호 방문해서 전도하는 전도팀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미용팀의 친절하고 따스한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동네잔치를 위해 뜨거운 가마솥에 삼계탕을 끓여 주신 식사팀과 은

혜로운 예배를 준비해준 예배팀까지 모든 팀이 최선을 다해 섬겼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아웃리치가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정말 크고 많았다. 그 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묵상한 말씀이다. “나

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계속 울린다. 누구도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진리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으며,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

유정희 성도
(강동온누리교회)

여호수아청년부
파주 은빛교회 아웃리치

작은 섬김도 헛되지 않게 하시리라!

여호수아청년부 '리조이스그룹'에서 매월 첫 주 토요일에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반찬전달사역'을 정기적으로 한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나도 처음으로 그 사역에 참여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에 관심이 있었기에 이번 아웃리치만큼 실천하기 좋은 기회가 없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가장 인상 깊은 배움은 '섬김의 자세'다. 우리 아웃리치 팀원 30명을 아홉 개 조로 나뉘 은빛교회가 섬기는 82가정 독거 어르신을 찾아갔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반찬으로 독거 어르신들이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배달했다. 예배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병행했다. 사역과 동시에 재능기부 형태로 네일아트, 가전 수리, 집안 청소 등도 했다.

한 가정은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해서 집안을 거의 치우지 못해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차 있었다. 오랫동안 치우지 않은 쓰레기와 오물로 인한 악취가 진동을 하고, 바퀴벌레와 쥐가 우글거렸다. 어르신과 간단한 교제를 나누고 부엌과 화장실 등 집안 곳곳을 청소했다. 마스크 두 개를 겹쳐 썼는데 악취가 계속 올라왔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묵묵히 청소하는 지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바퀴벌레가 너무 싫어서 비명을 지르면서도 별



여호수아청년부가 독거 어르신들의 집안을 청소하고(왼쪽), 식사를 대접했다(오른쪽).



레되지 스프레이를 들고 벌레들과 맞서는 팀원들이 참 멋있어 보였다. 또 무더운 날씨와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비와 마스크 등으로 온몸을 감싸고 비좁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뒤로 숨거나 내심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던 내 모습을 반성했다. 헌신적인 지체들을 보면서 진정한 섬김의 자세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

사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

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곳에서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사역을 이어나갔던 지체들처럼 나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면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믿게 되었다.

이번 파주 아웃리치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적인 노화와 병, 사회적 고립으로 소망을 잃어가는 노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

의 존재를 잊고 지냈던 것 같다.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헌신한 이들의 수고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작은 섬김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리라 믿는다.



오세은 자매
(여호수아청년부)

J4U청년부
강원도 삼척 감사교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감사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재개된 아웃리치였다. 모처럼 아웃리치를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와 여름 휴가 일정을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 마감될 수 있다는 광고를 듣고 서둘러 신청했던 것은 무모했던 것 같다. 다른 아웃리치도 좋았지만, 삼척 감사교회 아웃리치만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교회 정비사역을 하는 팀이었기에 더 그랬다. 무모한 신청이었지만 은혜로운 아웃리치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다.

오랜만에 재개된 아웃리치여서 그런지 초반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웃리치를 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맸다. 이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게 내가 총무로 섬기게 되면서 부담감을 느꼈다. 그러나 든든한 팀장님과 팀원들 덕분에 부담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아웃리치 준비하는 과정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내가 아웃리치를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기도 했다. 또 아웃리치 날짜가 다가오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는 것도 걱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식당팀에 배정된 팀원이 코로나19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갑작스레 식당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교회 정비에 힘을 보탤 마음이었기 때문



J4U청년부가 삼척 감사교회와 마을주민들을 전도하고, 식사대접하며 교제하고 있다.



에 아쉬운 마음이 컸다. 그래도 예전에 식당팀으로 섬겨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식당팀으로 섬기느라 아름다운 삼척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마을 어르신들과 교제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음식을 맛있게 먹여주는 팀원들 덕분에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이번 삼척 감사교회 아웃리치는 여태까지 경험했던 아웃리치와 달랐다. 총무라는 직분을 맡았고, 맡은 사역도 교회 정비팀에서 식당팀으로 바뀌었다. 총무로서 팀원들이 아웃리

치를 준비할 때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식당팀원으로서도 식단을 짜거나 장을 볼 때 함께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못했다. 예전의 나는 총무라면 모든 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이번 아웃리치에서 깨달았다. 동역자들이 각자 맡은 일을 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체롭게 그들 일에 관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더 많이 섬겨야 한다고 여겼던 지난 아웃리치들을 반성했다. 나의

교만함을 깨뜨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팀원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아웃리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팀원들 모두를 축복한다.



이신학 형제
(J4U청년부)

SNS청년부

브라질 아웃리치

“사랑을 주러 떠난 것인데 사랑을 더 받고 돌아왔다”

지난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브라질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우리의 주된 사역은 복음 전도, 베네수엘라 난민, 마약촌사역이었다. 40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브라질 마나우스에 도착했다. 마나우스에서 쾌속열차를 타고 4시간을 더 달려서 아마존 까삐랑가마을에 도착했다. 까삐랑가마을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환호와 ‘살아계신 주’ 찬양이 흘러나왔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분모를 가졌기에 제각각 언어로 같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다.

40도에 가까운 뜨거운 날씨, 생전 보지 못했던 벌레에 물려도 함께 하는 팀원 누구하나 힘든 내색 없이 일정을 소화했다.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며 사역했다. 옷이 땀에 젖을 정도로 더운 날씨였는데 그 위에 한복을 껴입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더러운 흙바닥을 굴렀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팀원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다.

그보다 더 눈물이 났던 것은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이었다. 선교사님 부부는 사역할 건강과 체력이 아니었다. 무더위에 매일 옷이 땀에 다 젖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쏟아부으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가 편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선교사님들이 이미 쌓아놓은 관계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교사님을 보면서



SNS청년부가 브라질 까삐랑가마을에서 핸드볼 연주도 하고(사진 왼쪽), 사마우마마을에서 태권무 시범을 하고 있다(오른쪽).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러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플루트 연주를 했다. 매일 장소를 바꿔 두 번 공연했는데 사마우마리는 마을에서의 공연이 그 어떤 연주보다 행복했다. 마구간 같은 사역지에서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나같은 죄인 살리신)’를 연주했다. 연주하는 내내 사마우마마을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거저 받은 사랑, 남들에게 거저 주자’는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내게 ‘나부터 스스로를 사랑하자’는 마음을 주셨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만 했지 정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다. 브라질 현지 사역자들, 팀원들, 선교사님들, 현지인들도 사랑을

더 받고 돌아왔다. 사랑을 주러 떠난 것인데 사랑을 더 받고 돌아왔다. 브라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다.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남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야겠다. 그 사랑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글로리아 데우스(신, 하나님)!



장현화 자매
(SNS청년부)

SNS청년부

해금강교회 아웃리치

주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해금강교회는 1960년 창립된 어촌의 조그마한 미자립교회다. 일곱 명의 성도들과 목사님 가정이 함께 섬기고 있다. 거제도의 유명 관광지인 ‘바람의 언덕’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에 해금강교회가 있다.

해금강교회의 담임목사 이종진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인 관광지에서 11년째 목회하고 계신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관광객을 섬기는 사역을 하신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학교에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신다. 마을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20명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목사님이 직접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서 교회학교를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그것조차 힘들어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니 벌써 몇 해가 지났으며 많이 아쉬워하셨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회학교’를 열고 싶은 소망이 생기셨다고 했다. 다문화가정, 조순가정 아이들과 믿지 않는 가정이 대부분인 해금강 지역 동네를 직접 찾아가 예배드리고 캠퍼도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캠퍼가 필요하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마을 되기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해금강교회에 관심과 후원, 중보기도를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는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마을 벽화와 보수 사역을 했다. 해금강교회에서 3년 만에 열리는 여름성경학교였다.



SNS청년부가 해금강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열고(왼쪽), 마을벽화도 그리고 있다(오른쪽).



목사님이 SNS청년부가 준비한 여름성경학교 초대장과 간식들을 직접 나눠주셨다. 더 많은 아이가 참석하도록 가정마다 전화해서 오랜만에 열리는 여름성경학교 홍보도 하셨다. 우리도 오랜만에 참석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율동과 성경퀴즈, 미션게임, 연극 ‘블랙라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선물과 벽화 사역도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팀은 매일 밤 11시 마음을 모아 해금강교회와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웃리치 준비가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웃리치 출발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수의 팀원이 일주일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앞선 데 댔던 격으로 아웃리치 당일 가지고 가야 할 식재료도 도착하지 않았다. 1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빈손으로 떠났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였다. 하지만 막상 거제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해두신 은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3일 동안 맑은 날씨 덕분에 벽화 사역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다. 아이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17명

이 참석했다. 큰 사고나 아픈 사람 없이 아웃리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주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아웃리치였다. 특히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한 아이들과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한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다. 그 아이들 모두가 주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지원 자매
(SNS청년부)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분야가 ‘재정’이다. 하나님과 돈은 정면으로 경쟁한다. 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돈을 섬길 수 없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마 6:24).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돈을 경계하도록 하신 이유는 돈의 힘이 사실상 막강하고, 돈에 의지해 살려는 인간의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을 제외하면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다. 한 푼이라도 더 돈을 쌓아놓아야 걱정을 줄이며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교회 내에서도 세상만 큼이나 팽배하다. 인간이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의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크게 위축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의 위력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분야 특히 재정 분야를 맡기라고 하시는 것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질 의사와 능력이 있다. 재정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사와 능력을 확신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풍부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다.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에 따라 동행하는 직접적인 경험과 성경과 신앙 서적 읽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가는 간접적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의 축적이 바로 신앙생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사역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통치하신다고 확신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돈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한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주권과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고,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인의 재정은 세상의 셈법이 통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힘겹게 재산 보전이나 증식을 위해 씨름할 필요가 없다.

재정에 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걸음은 십일조 헌금을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십일조가 황궁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받게 한다고 가르친다(말 3:10~12).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우리의 재정은 안전한 축복으로 들어간다.

십수 년 전, 필자에게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필자 나름의 유리한 계산법으로 십일조를 계산해서 헌금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색한 필자에게 서운해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눈물로 회개했다. 인색한 사랑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필자는 십일조가 종교적 의무 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필자에게 십일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하나님은 필자의 온전한 십일조를 받아서 필자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필자의 재정을 책임지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치는 삶은 청지기의 삶이다.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세상의 방식으로 재테크

를 하면서 재산을 증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열심히 힘쓰면 의식주의 모든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이로써 믿음 안에서 평강과 안정을 누리다. 그리스도인이 재물에 집중해서 땅의 재물을 쌓고자 하면 돈의 지배에 사로잡혀 주변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악한 길에 빠지게 된다. 하늘의 상급을 가져오는 천국 보화를 쌓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선한 계획이 어그러지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무엇보다 훈련이 필요하다. 기도와 순종, 주와 동행하면서 재정을 비롯한 삶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한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이 재정에 관한 훈련의 장(場)에 들어가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과 안정의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차두희 멘토
(J4U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어그러진 부부 대화를 회복하는 방법

관계가 서먹해진 부부가 있었다. 사실 서먹해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을 만큼 관계가 아주 틀어진 상태였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어긋난 길을 걸어왔다. 아이들과는 가깝게 지내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남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무관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의 눈과 얼굴에는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다. 서운함도 가득했고, 조금의 기회만 생겨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실 싸우기도 지쳐버렸다. 싸우면서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즉에 알게 되면서 상대를 포기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가 화를 돋우기도 한다. 이제는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서로 회피하는 지경이다. 남편은 남편의 공간으로 숨어버렸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철수했다. 아내와 남편은 종종 아이들을 심리, 정서적으로 끌어당기는 줄다리기를 했다.

부부는 아주 유능한 배우가 되어서 자신들의 갈등을 아이들에게 잘 숨기면서 지낸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미소를 보였다. 미소와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갈등을 철저히 모를 거로 생각했다. 물론 그것은 착각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집안의 찬 공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이 있다. 그저 모른 척

해줄 뿐이다. 어쩌면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태풍 전야를 직감적으로 감지하면서 두렵고 우울한 채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부부는 오래된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을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부부관계의 실패와 좌절의 쓴맛만 수없이 봐왔던 터라 더는 손해 보면서 먼저 손 내밀기가 싫었다. 어쩌면 정서적으로 이미 별거 상태라고 봐도 무방했다. 그러던 중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남편에게 생겼다.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장해 왔다. 식탁에 음식을 놓고 대화를 하려고 했다. 아내도 그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의 상심이 깊어진 탓에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던 남편의 계획과 여전히 부부의 대화를 바라던 아내의 작은 희망은 만남의 접착점을 찾지 못하고 무참히 무너졌다. 아내가 “왜 이걸 사왔는데?”라고 통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남편은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라고 되받아쳤다. 너무 자연스럽게 감정이 격해지고 말이 거칠어졌다. 부부 사이에 “당신은 꼭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야”,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등 거친 말들이 오고 갔다. 부부는 또다시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다.

부부가 어느 정도 대화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는 방법이 있다. 집안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는 부부라면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매번 싸웠던 장소에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렸던 장소가 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덩치가 큰 개가 튀어나왔다. 너무 놀라 도망갔지만 개에게 물리고 말았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그 장소에서 개에게 물렸던 충격은 참으로 오래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었지만, 개에게 물렸던 장소를 생각하거나 그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면 그때의 거의 모든 것이 불쾌하게 재현되어 식은땀이 날 정도다. 예전보다는 심리적으로 많이 회복된 상태지만 여전히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장소와 기억이 주는 영향력이 있다. 가정에서 늘 갈등과 심각한 갈등으로 다툼이 있었다면 대화를 시도하는 장소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시간의 변화와 외모의 변화도 필요할 수 있다. 용기 내어서 다른 장소에서 대화할 수 있는 데이트를 신청해 보자. 또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라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외출해야 하고, 참여하는 애경사 등이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집을 떠나 새로운 장소와 환경에서 대화할 수 있다.

대화를 시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판단과 원망 중지다. 인간이 싸움을 시작하면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한다. 자신도 모르는 날카로운 혀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한다. “당신은 이래”, “당신은 분명”, “당신은 틀림없이”, “당신은 언제냐” 등의 판단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새로운 장소와 환경에서 ‘나 전달법’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다. ‘나 전달법’에는 ‘겸손’, ‘사랑’, ‘인내’, ‘은유’, ‘회복의 기대’, ‘경청’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부부는 대화를 통해서 무너진 관계를 서서히 다시 쌓을 수 있다. 너무 힘든 고통이 있다면 교회의 부부 모임이나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사 43:18-19).

나눔: 최근 결혼 생활 중에 느낀 행복은 무엇이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부부의 대화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부부가 가장 즐겁게 대화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추억을 나눴는데요.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재’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면 전통적 관습이라도



고조선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내려와 마한 54개국 중 하나인 건마국(乾馬國)을 세웠던 땅, 서동이 마를 캐다가 선화공주와 혼인하고 백제왕이 된 땅, 고구려 유민 안승이 보덕국을 세웠던 역사의 땅이 전라북도 익산이다. 시조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이 난초를 벗 삼아 지내던 문학의 고장도 익산이다.

익산시 성당면 두동편백마을에는 7자 모양의 오래된 교회당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 두 곳 남은 7자 교회당 중 하나다. 정갈한 마을 길을 걷다 보면 두동교회 본당과 선교교육관이 보이는데 마을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크다. 7자 모양의 교회와 오래된 종탑은 백 년은 된직한 반송과 어우러져 마당

한쪽을 지키고 있다. 새것을 짓느라 옛것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일상이니 두동교회는 옛것을 소중하게 여겨 남겨 두었다.

이 마을에 복음이 전해진 때는 1923년이다. 해리슨 선교사와 김정복 씨가 복음을 전한 덕분에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 무렵 이 마을은 부자 박재신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는 꽤 관찮은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대납하기도 했고, 기근이 들면 창고를 열어 굶는 사람을 도와 주었다. 선한 성품이어서 그랬는지 부인이 이웃마을 부곡교회를 다니는 것을 묵인했다. 그러다 부인이 임신하자 사랑채를 내어 마을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게 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 부인과 태중의 아기를 배려한 것

이다. 하지만 박재신의 아들이 5살에 병사하고, 고모의 장례 절차를 두고 전도사와 마찰을 빚자 사랑채를 담아 버렸다.

예배당이 사라진 것이다. 성도들은 다른 장소에 교회를 세워야 했다. 마을 땅 대부분이 박재신의 것이니 그의 소유가 아닌 조그마한 땅을 사서 교회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예배당을 지을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안면도 소나무를 실은 배가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떠다니던 소나무는 밀물을 따라 금강을 거슬러 올라와 마을에서 멀지 않는 성당포구에 닿았다. 성도들은 이 소나무를 헐값에 살 수 있었다. 안면도는 소나무로 유명한 곳이다. 예부터 나라에서 쓸 소나무를 보호하던 섬이었다. 7자 교회당은 이 목재로 지어졌다.

교회는 가난했다. 굵은 목재를 살 수 없었다. 교회 기둥과 서까래와 대들보가 가늘다. 가는 목재를 사용하면 지붕에서 내리누르는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서까래가 다 노출된 천장 구조로 만들었다. 지붕 위에도 기와가 아닌 함석을 덮었다. 지붕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다. 함석지붕을 두드리는 비가 내리면 찬송가 소리가 더 우렁찼을 것이다. 두동마을은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목재를 준비해 주셨다.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박재신의 선행에만

기대어 신앙을 유지한다면 그의 마음이 변했을 때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에만 기대어 그것을 유지한다면 허물어지는 것도 순간이다. 다양한 일꾼을 양성해서 선순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자 모양으로 지은 것은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유교적 질서가 허물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통적 관습이라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7자 모양으로 지어 남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듣게 했더니 남자도 여자도 교회 출석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에는 전통문화를 존중하려는 풍토가 있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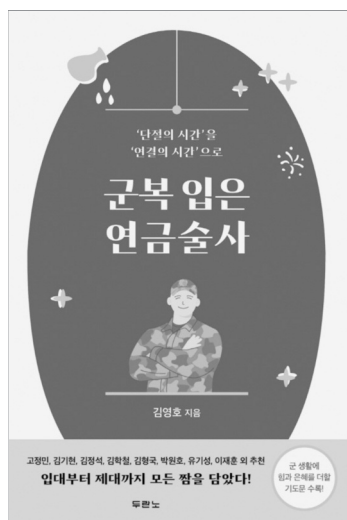
두동교회 장마루에 앉으면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다음세대에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떤 교회를 물려주게 될까?



임찬웅 성도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
(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두란노 신간

단절의 시간을 연결의 시간으로!



<군복 입은 연금술사>
김영호 저 | 두란노 | 14,000원

에서 인생을 계획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며 군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 <군복 입은 연금술사>의 장점은 성경적 원리를 일반적인 언어로 풀어냈다는 점이다. 종교나 개인의 신념과 상관없이 입대를 앞두거나 군 생활하는 자녀와 친구, 공동체 지체에게 선물하기 좋다. 전도용으로 활용하기도 좋다. 책을 펼치는 순간 버겁기만 했던 군 생활이 의미와 가치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눈을 감아봐라,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미래다.”

군 생활을 두고 하는 우스갯소리다. 많은 사람이 군대를 “내일이 없는 곳”이라고 말한다. 느리게만 흘러가는 군대에서의 18개월은 무의미하고 헛되게 버려지는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다.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내일’이 없는 곳을 ‘내일’을 찾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세상과 단절된 청년들의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바꾸어주는 사람이다. 그 주인공은 연무대 육군훈련소 군중참모이자 연무대군인교회를 섬기는 김영호 목사다.

김영호 목사가 책 <군복 입은 연금술사>를 펴냈다.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적극적인 자세로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군대에서 실제 경험하는 훈련과 환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안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말씀 앞에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8월 25일부터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 결선!



총 1,052명이 참가했다. 10대부터 50대까지 참가자들이 본선을 마쳤고, 60대 참가자들의 본선이 이어지고 있다. 60대 참가자들의 본선이 끝나면 연령별 본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이 대망의 결선을 한다. 8월 25일 공개되는 <바이블킹> 26회에서 결선이 시작된다. <바이블킹>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기독교 OTT ‘풍당’에 업로드된다.

CGNTV는 <바이블킹>을 더욱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바이블킹 맞히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바이블킹> 주인공으로 예상되는 참가자의 이름을 기독교 OTT ‘풍당’ 카카오톡 채널에 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이벤트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치킨 쿠폰 등의 상품을 증정한다.

기독교 OTT ‘풍당’ 온라인 콘텐츠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 (이하 <바이블킹>)’이 대망의 결선을 시작한다. 과연 첫 번째 말씀 암송왕은 누가 될까? 귀추가 주목된다.

‘말씀 앞에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내건 성경암송 퀴즈쇼 <바이블킹>에는



예슨 '새로운 페이지' 전시회가 8월 30일까지 BC카드 사옥 2층에서 열린다.

예슨, '새로운 페이지' 전시회 개최

8월 17~30일 BC카드 사옥 2층 로비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前 번동코이노니아) 소속 예슨 작가들이 '새로운 페이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수)부터 오는 30일(화)까지 BC카드 사옥 2층 로비(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에서 열린다.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BC카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예

슨 '새로운 페이지' 전시회에서는 예슨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발달장애인 예술가 작품 전시회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전시회를 관람하고 본인 SNS에 관련 게시글을 업로드하면 기프트카드(5만 원권), 아티제 커피상품권(3만 원), 예코백, 커피교환권(5천 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추천권

1장을 제공한다. 전시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해서 감상할 수 있다.

송영범 대표이사(온누리복지재단)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전시회를 개최해 준 BC카드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전시회에 많은 성도의 관람과 성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NGO더멋진세상

"아이들 도시락 싸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스리랑카 라투갈라마를 긴급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스리랑카 라투갈라마를 주민들을 위한 긴급식품 지원을 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스리랑카 라투갈라마를 100가구에 식품패키지(쌀 25kg, 렌틸콩 2kg, 양파 1kg, 밀가루 5kg, 설탕 2kg, 감자 1kg)를 전달했다. 지난 5월 국가 부도를 맞은 스리랑카는 극심한 경제난에 빠져있다. 라투갈라마를 주민 대부분이 농사와 일용직에 종사하는데 비료와 기름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반다라 목사는 "쌀 1kg도 구입할 수 없는 가정에 식품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면서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도시락을 싸갈 수 있게 됐다"고 안심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라투갈라마를 주민들을 위한 추가 구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물도바 호수 복원 사업 시작

NGO 더멋진세상이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동유럽 물도바 두보브카 마을 호수 복원을 시작했다. 현재 약 7ha 면적의 호수 주변과 호수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두보브카마을 호수가 복원되면 농장과 양어장 등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후원 계좌: 573-910009-09905(하나은행) 문의: 02-2271-2246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실을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을 보낼 때는 '작품 제목, 작품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에 게재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사모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본부 121기 사모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본부 121기 사모어머니학교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된다. 사모어머니학교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전도사 사모를 포함해 사역자의 사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미자립교회 사모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회비는 무료.

문의: 02-2182-9114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이스라엘 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2일(화)부터 18일(월)까지 6박 7일 이스라엘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010-4902-1022)로 하면 된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에서는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구약성경, 사복음서, 중동전쟁사, 초기의 로마황제, 헤롯왕조의 흥망, 유대인의 자녀교육 등을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한다.

문의: 010-4902-1022

'KTX 타고 떠나는 부산여행'

9개 나라 다문화청소년 23명 참가

다문화청소년들이 'KTX 타고 떠나는 부산여행'을 다녀왔다. 사회선교부 다문화사역팀이 지난 8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동안 포천하랑센터에 소속된 9개 나라 다문화청소년 23명(초6~고등)과 교사(봉사자) 8명과 함께 부산여행을 갔다.

부산 UN기념공원(세계 유일 유엔 기념 묘지), 태종대, 국립해양박물관, 송도 해수욕장(해상케이블, 용궁구름다리) 등지를 방문하고 '나

의 정체성을 찾아서'를 주제로 함께 예배도 드렸다.

박승호 센터장(포천하랑센터)은 "부산에서 보낸 3박 4일은 나와 다문화가정 아이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었다"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정현주 기자



다문화사역팀이 다문화청소년들과 함께 부산여행을 다녀왔다.

화성 레인보우스쿨 2학기 개강

우크라이나 등 이주민 청소년 16명 등록

화성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에 서 이주민 청소년들의 꿈이 영어가고 있다. 8월 9일 개강한 '레인보우스쿨 2학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이주민 청소년 16명이 등록했다.

수강생들은 약 5개월 동안 한국어, 영어, 수학, 태권도, 문화체험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조요섭 팀장은 "이주민 청소년들의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공동체성도 무럭무럭 자라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031-8077-9110

일본어예배부, 글로벌 일대일 하이브리드반

9월 15일~11월 24일, 일본어 회화 가능자

일본어예배부에서 글로벌(일본어)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를 양성하는 '글로벌 일대일 하이브리드반'을 개설한다.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를 1회 이상 양육하고,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본 영혼 구원에 관심과 애정있는 성도라면 더욱 좋다. 나문체 선교사, 오카 사오리 사역자가 일본어 코칭 및 일대일제자양육법 강의와 실습을 돕는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10-3287-4511

한국어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9월 3일~11월 12일 매주 토 오후 7시 온라인

한국어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한국어선교학교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와 복음을 전하는 교수법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한국어 선교 필요성과 전략', '한국어 발음 교육

론',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등을 주제로 10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8월 2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3290-4506

세례 간증



/ 조기훈 성도(마포공동체)

나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많은 사람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라고 생각했다. 인생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나는 신에게 의지할 필요성도, 갈망도 느끼지 못했다.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고백한다.

올해 2월, 5년 전 뇌종양 수술을 한 아내가 여느 때와 같이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 의료진도, 아내도, 나도 아내의 병이 완치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척수로 종양이 전이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검사 결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과 여러 논문을 찾아보았는데, 종양의 재발이나 전이는 치료도, 완치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 가야겠다고 했다. 나는 최대한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에 함께 교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현재 내 상황과 생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을 느꼈다.

내가 새사람이 된 것 같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나는 매주 주일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간절한 기도도 드리게 되었다. <생명의 삶>으로 매일 새벽기도를 하고, 자기 전에는 장모님과 아내와 함께 큐티하고 은혜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했더니 지금껏 느끼지 못한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다. 내가 새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아내가 겪고 있는 병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불행해 보일 수 있다. 두렵고 막연한 미래가 올 것만 같아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투병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꼈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다.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구원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의 소풍



/ 김진홍 다락방장(영등포구로공동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0명이 한국 정부의 보호 아래 국내에 들어왔다. 그들은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울산, 인천, 김포 등 전국에 흩어져 정착했다. 현재 김포 지역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가 8가정 40여 명이 살고 있다.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한국에 돌아와 김포지역에서 난민사역을 하는 구자현 선교사님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 함께 소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선교사님께서도 흔쾌히 승낙하셨다.

환경도, 언어도, 음식도 낯선 머나먼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다. 일부 가정은 아프가니스탄에 자녀들을 남겨두고 와서 염려가 많다고 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건네고, 좋은 추억을 남겨 주고 싶었다.

아프가니스탄은 내륙지역이어서 바다가 없다. 그래서인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 물으면 “바다를 보고 싶다”, “배를 타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다. 선교사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바다를 경험하고, 배를 안전하게 탈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

도움으로 영종도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의 소풍 장소로 정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의 소풍에는 아프가니스탄 8가정 42명, 한국인 봉사자 22명, 총 64명이 참가했다. 날씨가 흐려서 그리 답지 않았다.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생전 처음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 하는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과 봉사자들도 함께 기뻐하며 아이들과 놀아줬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역사박물관도 관람하고 드디어 배를 탔다. 영종도에서 월미도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였지만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는 경험을 하면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이번 소풍이 아프가니스탄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한국에서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된 것 같다. 봉사자들이 주말에 시간을 내 정성껏 섬겨주고, 아프가니스탄 가정과 함께 어울려줘서 정말 감사하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순조롭게 정착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구원자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기도한다

故 주선에 권사님을 생각하며



/ 이승근 집사(과천의왕공동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추억과 감사가 있다. 그중에는 나에게 검약(儉約)을 가르쳐 준 일화도 있다. 어느 날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온누리신문이 쌓인 곳에 주선에 권사님이 서 계셨다.

주선에 권사님은 온누리신문을 보시다가 보시던 신문은 내려놓고, 구김이 있는 신문을 챙겨 가셨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게 물결한 마음과 함께 도전을 주었다. 어찌 보면 사소하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몸에 밴 주선에 권사님의 검약과 교회를 조용히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나도 다른 성도님들이 펼쳐보았던 주름진 온누리신문을 챙긴다. 귀한 가르침을 주신 주선에 권사님께 감사하다.

이 글을 적으면서 “주선에 권사님께서 강권하시기를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인터넷에 권사님의 이름을 검색했더니 지난달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내가 작은 추억을 글로 옮기려 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다. 귀한 어르신의 삶과 가

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다.

과거에 하용조 목사님이 주선에 권사님을 ‘영적 어머니’라고 표현하셨고, 주선에 권사님은 온누리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예배당 입구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로 동역하신 것을 기억한다.

주선에 권사님이 장신대에서 마지막 강의에 하신 말씀을 들으며 또 한 번 도전을 받았다.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짧아요. 30대, 40대, 50대, 60대 금방 지나가고 뒤로 물러나야 해요. 지금부터 해봐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느끼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하나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주선에 권사님의 신앙을 나도 본받고 싶다.

“주선에 권사님께서 신학교 동기인 유진 피터슨의 ‘메세지성경보내기운동’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장학교 수료 간증



/ 이명석 순장(영등포구로공동체)

이런 순장이 되고 싶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10년 이상 안개 성도로 주일예배만 드렸다.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1996년 6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에 전념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뜨거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사그라져 갔다. 내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고 자녀도 주셨다. 자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자는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차세대 예꿈 영아3부 예배를 매주 참석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고,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하고, 2019년부터는 순예배도 드렸다. 아이스쿨에 있는 다양한 강의도 수강했다. 순장학교도 그 연장선이었다.

순장학교에서는 매주 조모임을 통해서 주제토의와 큐티 나눔을 했다. 내가 과연 순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가 부담이었다. 감사하게도 온유하고 모범이 되는 김대엽 테이블리더님이 이끌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같은 조원으로 네 분의 예비 순장님들을 만난 것도 감사했다.

조모임에서 매주 역할을 바뀌며 실제 순예배처럼 진행을 해봤다. 테이블리더 역할도 해보고, 순장 역할, 시작 기도, 전화심방, 마침 기도, 주제토의 기록까지 모든 역할을 두 번 이상 해볼 수 있었다.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과 연결되는 교과 과정이 순장으로 세워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떨리는 마음과 기도로 순장 실습을 준비했다. 순장님과 장로님, 순식구들의 배려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첫 순예배를 잘 마쳤다. 그동안 순장님이 순예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헌신을 하셨는지를 깨달았다.

좋은 순장이 되려면 나의 지혜와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만약 공동체에서 나에게 순장 자리를 맡겨주면 순식구들이 순예배를 손꼽아 기다리는 순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순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먼저 다가가려고 한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순예배와 순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순예배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순이 되기를 기도할 것이다.

장로칼럼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들었다!

최호림 장로
(동대문중앙공동체)

“여호와와 내편이 시라.”

서빙고온누리교회 동대문중앙공동체(강은수 목사 담당)가 지난 7월 31일과 8월 7일 아주 특별한 아웃리치를 했다. 동대문중앙공동체가 ‘여호와와 내편이시라’ (시편 118:6)를 주제

로 경기도 의정부안디옥열방교회에서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그 대상은 튀르키예(구 터키)에서 온 노동자들이었다. 낯선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지체들을 섬기는 게 이번 아웃리치의 목적이었다.

동대문중앙공동체 아웃리치가 열린 의정부안디옥열방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일 담임목사님은 튀르키예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귀국하셨는데, 국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또 다시 튀르키예 노동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이번 동대문중앙공동체 아웃리치에서는 교회 시설 보수공사, 튀르키예 형제들과의 서울 투어, 튀르키예 언어 찬양집회 등을 했다. 시설보수 공사에서는 지난 7월 23일부터 한 주 동안 교회 옥탑방의 폐가구 철거, 복도 페인팅과 대청소 등을 했다. 의정부안디옥열방교회는 김종일 담임목사님은 주중에는 아신대학교에 강의를 다니고, 튀르키예 성도들도 보통 주말에만 교회에 오기 때문에 환경정리가 꼭 필요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의정부안디옥열방교회를 깨끗하게 쓸고 닦고 정리해준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들의 귀한 섬김에 감사를 전한다.

튀르키예 형제들과의 서울 투어 행사는 8월

7일 진행했다. 튀르키예 지체들과 함께 남산 한옥마을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왔다. 남산 한옥마을에서 동대문중앙공동체 지체들과 튀르키예 지체들이 한 조가 되어서 제기차기, 망가끼, 투호 등의 민속놀이를 체험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역사학을 전공한 채현석 선교사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한국의 역사와 유물을 관람했다. 튀르키예 지체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튀르키예 언어 찬양집회는 7월 31일에 막을 랐다.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 80여 명과 튀르키예 지체 3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 함께 튀르키예 언어로 찬양을 부르고, 피아노 독주, 콘트라 베이스 특순 등이 이어졌다. 특히 신원석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뜨겁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예배를 드리고 튀르키예 전통 음식인 케밥과 전통 음료인 ‘아이란’을 먹으며 교제도 했다.

이번 아웃리치 팀장으로 섬긴 주성대 집사는 “동대문중앙공동체의 지속적인 섬김과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튀르키예 형제들의 닫혀 있는 마음이 활짝 열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나눴다. 주성대 집사의 바람이 통했다. 튀르키예 지체 네 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그 네 명의 튀르키예 지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동대문중앙공동체는 5년 전부터 튀르키예 언어로 예배드리는 의정부안디옥열방교회를 섬기고 있다. 동대문중앙공동체 지체들은 튀르키예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과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언누리교회 성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

권사칼럼

9월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서송옥 권사
(고양은평공동체)

2011년 8월, 그때도 참 더웠다. 그날 날씨가 생생하다. 주일 아침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C국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소식을 들었지만 돌아올 수는 없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기 위해 C국의 목사님들이 어렵게 그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들을 두고 돌아가는 것은 하용조 목사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았다.

아웃리치 팀원들이 함께 모여 ‘이런 상황에서 하용조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의논했다. 하용조 목사님이라면 분명 “다 마치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 그곳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온라인으로나마 발인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때 아웃리치에 같이 갔던 장로님과 여자들은 물론이고 남자 대원들까지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 그 모습을 보고 그곳의 예배자들이 감동했다. ‘도대체 어떤 주의 종이길래 이렇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날이 벌써 11년이 넘어가고 있다.

더운 여름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을 기리며 또 가슴이 맨다. 설교하실 때가 가장 행복하다던 목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설교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너무 힘이 들면 더러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난다. 이맘때가 되면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생각이 난다. 그날들이 무척이나 그립다.

2000년, 온누리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 세상적으로는 무모한 듯 보이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배웠다.

하용조 목사님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고 엄두도 나지 않는 일들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무모하고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대표적인 일이 CGNTV다. 러브소나타도 두 말하면 잔소리다. 아 참, 한 가지 또 있다. 2005년인가 진행했던 ‘예루살렘 평화의 행진’도 그렇다. 2천 명이 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한꺼번에 투입 시킨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행진이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획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 많은 인원이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느낀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다.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전하셨던 무모한 그 사랑을 나도 잘 전하고 싶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그 엄청난 사랑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해주고 싶다. 하용조 목사님은 삶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나는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그 사랑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만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 시며 실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을 나도 닮고 싶다. 그래서 나는 9월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3년 만에 재개되는 러브소나타 봉사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나도 쓰임 받고 싶다.

신앙에세이

전병천 목사
(마포공동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인류 최초의 실패한 인생, 인류 최초의 실패한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를 반면교사 삼음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아담과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인류 최초로 죄를 짓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로 숨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네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창 3:11)고 물었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창 3:12)라며 여자를 탓한다. 아담이 뼈 가운데 뼈요,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다고 좋아했던 그 여자를 탓한다.

여러분은 어떤가? 혹시 일이 잘 안 풀리지 않는 상황,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아내 탓, 남편 탓, 자녀 탓, 부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저 여자(남자)와 결혼해서 불행한 거야’, ‘내 자녀들이 공부 못해서 불행한 거야’,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서 내가 불행한 거야’라고 말이다. 아담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DTS훈련(예수제자훈련)을 YWAM에서 받고 있을 때였다. 3개월 동안 이론교육을 마치고 아웃리치를 떠나야 했는데 당시 우리는 세 팀(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나뉘어서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중국팀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뒷말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옛날 학교 칠판이 보였다. 거기에 ‘떠든 사람 전병천’이라고 적혀있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나는 한 번도 중국팀에 대한 비판이나 뒷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집게손가락으로 누군가를 지적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여자의 이름은 따로 짓지 않았다(창 2:23). 오히려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와’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성도님들이 아담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부부는 한 몸이요,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마음을 품어야 한다. 부부가 분리될 때, 부모와 자녀가 분리될 때, 형제간이 분리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부터 분리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엡 5:21).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처음 한 말이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달라”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섬기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우리 모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행위에 의존되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살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의 행위에 의존되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이 결속되어 살아갑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의 현실은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은 삶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여러분,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와 생명입니다.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죽음이 지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려면 죄가 해결되고, 죽음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죄가 가져온 것이고, 죄는 인간이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새로워져야 하고,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하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긴 생명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왕 노릇을 하는 세상으로 이끄십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지만, 죽음을 이긴 생명이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잠시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은 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생명이 인간의 생명 가운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

을 전달해 주는 배달자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을 배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인류의 인구가 약 80억 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는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윈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두 사람만 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허리끈에 매달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이 왕 노릇을 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이 왕 노릇을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속한 아담의 몸으로는 결코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꼭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주지만, 죄는 언제나 빼앗는다”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빼앗고, 그 가족 간의 축

복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았고, 평화를 빼앗았습니다. 죄와 죽음은 수없이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언제나 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 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17절, 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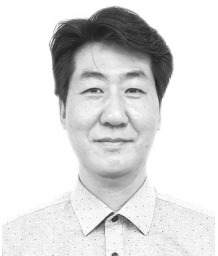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가져간 것을 정확하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보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구원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이들은 타락 이전에 아담이 몰랐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영향력을 알고, 불순종의 대가를 알기에 은혜와 생명이 왕 노릇을 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 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 노릇 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21절).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갖고 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세상이 망가졌지만,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대는 아담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담에게 속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복지재단’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정성우 원장
(북서울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북서울장애인보호 작업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이 1999년 8월부터 서울특별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올해 7월부터 그 이름을 ‘변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 변경했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들에게 ‘화가양성훈련’과 ‘봉제훈련’ 등의 직업 재할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자활과 자립을 통해서 하나님에 지으신 피조물로서 세상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화가양성훈련을 받는 ‘예송 작업장’에서는 장애인 작가 22명이 감수성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결과물(그림)을 활용해 연 1회 이상 전시회를 연다. 특히 지난해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개최한 전시회가 일반 예술작가 및 관람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올해도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소속 장애인 작가들이 더 좋은 작품 활동에서 얻은 결과물을 지난해와 동일한 장소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회뿐만 아니라 기업체 및 개인사업장과 협약을 맺고 작품 렌탈 서비스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해 만든 명함, 달력, 휴대폰케이스, 노트, 메모지 등을 동명의 브랜드 ‘Yeson’의 이름으로 판매도 하고 있다. 두란노서점과 카페 등 오프라인과 인터넷 쇼핑몰 ‘마이소호’에서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이 귀한 작품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 및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있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들이 봉제훈련을 받는 ‘봉제작업장’에서는 장애인 10명이 기업체 및 관공서의 근무복, 조끼, 작업복, 유니폼, 각종 연수원의 침구류 등을 주문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봉제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주력 품목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장애인들도 완성도 높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도 여러 기업체와 연계고용을 맺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재주문하는 업체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전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20년부터 예송 작가들이 기존의 미술 회화를 넘어 디지털 드로잉을 통한 작품 활동을 할 기회가 생겼다. 현재 장애인 작가 10명이 디지털 드로잉 작품을 만들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전시회에서는 미술 회화 작품과 함께 디지털 드로잉 작품도 전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KT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드로잉 단독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BC카드(관련기사 10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 등의 지원을 받아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작품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작품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는 더 많은 소식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펼쳐나갈 아름다운 미래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한다.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 종사자들은 장애인들을 더 열심히 섬기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기쁨의 열매를 교회와 사회에 나누고, 함께 성장해가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로 북서울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문의: 02-985-3609

서빙고

0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페인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평택온누리M센터 차세대 교사 모집

예배 및 소그룹: 11:00~13:30

대상: 초등 4학년~중학생

위치: 1호선 평택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평택온누리M센터 O.G.A. 봉사자 모집

대상: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준비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모집: 한국어, 미술, 악기, 미술치료, 음악치

료 수업

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00~3:00 /

화~금(주 1~2회 수업)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한국어선교학교 학생 모집

대상: 한국어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는 선교의 열정을 가진 세례교인 이상의 모

든 성도

일시: 9월 3일~11월 12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9시

강의: 실시간 Zoom 온라인 영상강의

등록: ischool에서 등록(8월 29일까지 접수)

비용: 3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차준근 팀장(010-3290-4506)

일본어예배부 글로벌 일대일 하이브

리드반

일시: 9월 15~11월 24일 매주 목 오후 8시

강의: 대면 및 온라인(Zoom)

대상: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1회 이상 양

육 및 일본어 회화 가능 성도

문의: 010-3287-4511

양재

0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성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모임

대상: 공동체 참여가 어려운 온누리

교회 성도

신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문의: 02-3215-3214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일시: 10월 12일(화)~18일(월)

장소: 이스라엘 현지

대상: 이스라엘 현지를 답사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성도

문의: 010-4902-1022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신앙 고백 토크쇼

어메이징 그레이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방송

진행 배우 윤유선, 가수 이세준 | **출연** 가수 박기영(1편), 김대오 선교사(2편)

'풍당'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